

SI 융합 생태계 조성 용역·심뇌혈관 연구소 부지 매입

광주·전남 내년 예산 반영 내용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구축 문화도시 특별회계 역대 최대 규모 바이오·우주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전남관광 경쟁력 확보 사업 본격화

◇광주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 경쟁에서 새 정부의 호남 소의 우위 등을 딛고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국별 발 빠른 국비 사업 발굴과 전략 마련, 지역 국회의원 등의 지원 사격 등이 주요했다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AI·아시아문화중심도시·무등산 방공포대 등 핵심 예산 확보=광주시에 확보한 내년도 국비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조성사업이다.

광주시는 예산경쟁 막판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재양성부터 창업·기업 성장,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 사업비(7억원)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용역 사업비(10억원) 등의 마중물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또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구축(14억원), 공공개방형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사업(70억원) 등도 최종 확보했다.

이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32억 3000만원)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복지 서비스 실증사업 등을 추가 확보해 인공지능 의료지원서비스 구축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대거 확보=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문화예술사업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냈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58억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6억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30억원), 수안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8억원) 등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지자체) 사업비를 지난해 444억원보다 70억원이나 늘어난 514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청소년 돌봄 사업비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 실시 설계비(10억원) 예산을 확보해 호남권(광주·전남·제주) 청소년에게 치료·보호·교육·자립이라는 종합적·전문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10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9000만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44억 6000만원) ▲(가칭)광주 중부경찰서 신설(30억원) 등이 반영돼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전남도는 2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확보한데다, 100건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에너지산업·첨단 전략산업,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첨단 전략사업 육성 계기 마련=전남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풍력발전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수·광양산단 기업의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3억원), ▲여수·신안 등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타당성 연구용역(2억원) ▲나주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3억5000만원) 등이다.

전남이 보유한 바이오·우주산업·전기차·조선 등의 기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사업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삼뇌혈관의 체계적 연구 및 전국 14개 권역 삼뇌혈관센터를 총괄 관리할 장성 국립 삼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25억원)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5억원)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21억원) 등이다.

◇전남 관광 경쟁력 업그레이드=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사업도 본격화된다. 무안에 서남해안의 체류형 해양휴양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사업(3억원)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을 조성한다.

나주읍성권 일대에는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22억원)을 추진하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17억원),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10억원) 등도 추진해 전남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식량산업의 위기 속에서 전남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총사업비 594억원·21억원)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곧바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고 완도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사업비 1636억원·6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총사업비 320억원·20억원) 등도 속도를 내게 됐다.

◇주요 SOC 사업도 본격화=정부의 SOC 예산 감축 및 정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지역 SOC 사업이 더디게 진행중인 상황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확보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우선,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광주-고흥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3억원)와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3억원), 광양항~울출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3억원),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총사업비 484억원·2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1780억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824억원·671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799억원·708억원) 등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박진표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기정 광주역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국비예산 확보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국힘 당대표 선거 시간표 확정...속도내는 '김장연대' 집중 견제구

내년 3월8일 전당대회 확정

당원주자들 신경전 가열

국민의힘 전당대회 물과 일정이 확정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후보 간 합동연회 중에서도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에 대한 경쟁자들의 견제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날짜는 (내년) 3월8일로 하겠다"며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정은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12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2월 초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 거쳐 컷오프 실시하게 된다"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전대 일정은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원투표 100%'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및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전대 물을 확정해 놓은 데 이어 이날 최종적인 전당대회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이다.

지난 주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이날로 전대 물과 시간표까지 최종 확정되자 당원 주자 간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더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김기현 의원과 진운(진운석열) 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손을 잡는다는 이른바 '김장연대'가 점차 의결을 갖춰가자 경쟁자들의 견제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개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과 당 개혁 방안 등 비전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며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연대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연

대론이 나오는데 그건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진정한 연대는 필승의 연대인 '윤당연대'(윤상현·당원)"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도 당원 주자 간 입장이 갈렸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단체에 임명될 것을 언급, "이름을 올려놓고 두 달 만에 나올 분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논조 주장했고, 안 의원은 "당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제 희망으로는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대 방식은 '당원 투표 100% 반영'이다. 이번 전대에는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전대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유희수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MB·김경수 사면 '법무부 원안' 대로 단행할 듯

오늘 국무회의 의결 28일 단행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案)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강운태 전 시장은 명예회복 차원의 정치재계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통상 사면 심사위 원안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원안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황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광주복지연구원
함께 합니다

2022년 연구결과

- 1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 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3 제5기(2023-2026)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4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계획 수립
- 5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6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 7 광주광역시 장기요양등급자의 서비스 미이용 경험연구
- 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 9 광주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 10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
- 11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1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도동 보호 가이드 연구

2023년 연구과제 선정

- 1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 2 제5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3 제4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 4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방안(2024-2026)
- 5 광주광역시 고독사 실태조사
- 6 2023 광주복지 통계연감
- 7 루게릭 장애인 생애사 연구
- 8 광주다문화통합돌봄 서비스모형 개선방안 연구
- 9 장애인친화 영향평가 지표개발
- 10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방안 연구
- 11 광주복지협치 가이드라인 연구
- 12 광주광역시 노인빈곤가구 실태조사